

## 영어 관광 안내판의 번역 오류: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최 희 섭  
(전주대)

### 1. 서론

필자는 다른 논문<sup>1)</sup>에서 광한루원 일대에 있는 영어 안내판에 나타난 고유명사의 번역 오류를 다룬 바 있다. 그 논문에서는 고유명사의 번역에 한정하여 논의하면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본고는 이 논문의 자매논문 성격을 띤 것으로 동일한 관광안내판에 있는 고유명사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의 오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에서 언급한 논문에서 이야기했듯이, 관광지에 설치되어 있는 영어 안내판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어 안내판은 영어 사용권의 독자들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외교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판은 기본 구조가 일관성을 유지해야하고, 해설 내용이 정확하

---

1) 광한루원의 안내판에 있는 고유명사의 번역 오류에 관하여는 줄고 「광한루원의 영어 안내판에 나타난 고유명사 철자 오류」 참조.

고 명료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관광객으로 하여금 제시된 안내문의 내용을 이해하게 하고 그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정일영 177). 영어 관광 안내판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편의시설의 일부이다.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거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관광지 안내 표지판 및 책자를 도착어 중심으로 번역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김도훈 31). 따라서 관광 안내판을 번역할 때에는 원천 텍스트의 정보를 제대로 옮겨놓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장이 정확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왜냐하면 번역가는 도착어 독자에게 생소한 원천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Neubert & Shreve 54).

전라북도 남원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광한루원에는 8개의 영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 중에서 두 개는 국가지정 문화재의 안내판이고 나머지 여섯 개는 도지정 문화재의 목록에도 없는 문화재의 안내판이다.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광한루」<sup>2)</sup>는 보물 281호, 「광한루원」은 사적 303호로 국가지정 문화재이다.

본고는 광한루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영어 안내판을 조사하여 한국어 원천 텍스트가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자연스러운 목표 텍스트로 번역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문법적 오류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적절한 어휘의 사용여부도 살펴본다. 논어의 편의를 위해 관사의 오류, 문맥 파악 잘못에 의한 오류, 과도한 설명과 생략에 의한 오류, 문화소의 이해 부족에 의한 오류 및 기타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 2. 본론

광한루원 일대에 있는 안내판은 다음과 같다.

---

2) 본고에서 사용하는 부호와 약자는 다음과 같다. 「」는 안내판 자체, “ ”는 인용, ST는 원천 텍스트, TT1은 안내판의 영어 번역 텍스트, TT2는 필자의 번역.

〈표 1〉 광한루원 일대의 관광안내판

번호	한국어 안내판명	영어 안내판명
1	광한루원(廣寒樓苑)	The Whole Area of Gwanghanru
2	광한루(廣寒樓)	Gwanghanru
3	광한루 · 오작교	Gwanghallu Pavilion & Ojak-gyo Bridge
4	오작교	Ojakgyo Bridge
5	춘향사당	Chunhyang Shrine
6	월매(月梅)집	Wolmae's House
7	완월정	Wanwoljeong Pavilion
8	승월교 무지개 분수	Rainbow Fountain on Seungwol-gyo Bridge

본고는 광한루원 일대의 영문 안내판에 포함되어 있는 오류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내판을 하나씩 차례대로 고찰하며 오류를 지적하도록 한다. 논의의 편의상 각 안내판을 한 번씩만 살펴보고 대표적인 오류만 지적하고 나머지 오류는 가급적 논의하지 않는다.

### 2.1. 관사의 오류

관사의 오류는 「광한루원」의 안내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안내판의 제목이 잘못되어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논문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지만, 관사의 오류에 중점을 두고 고찰한다. 이 안내판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1) ST: 이곳은 견우와 직녀가 칠월칠석날 은하수 오작교를 건너 만나는 사연을 담은 정원이다.

TT1: A legend states that here is a garden at which Gyeon U and Jik Nyeo meet by crossing the Milky Way Ojak Bridge on the seventh day of the July of the lunar calendar.

TT2: This is the garden where according to a legend, Gyeonu met Jiknyeo across the Ojakgyo bridge over the Milky Way on the seventh day of July in the lunar calendar.

이 예문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지만, 정관사의 문제만 논하기로 한다. “몇월 몇 일”을 영어로 표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정한 해의 특정한 달이 아닐 경우에는 “월” 앞에 정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는 “7월”을 나타내는 “July” 앞에 정관사 “the”를 붙였다. 이는 정관사의 오류로 생략해야 마땅하다. TT1에 있는 다른 오류도 TT2와 같이 바로잡아야 한다.

「광한루원」 안내판의 두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다.

(2) ST: 전라도 관찰사로 있던 정철이 요천(蓼川)의 물을 끌어들여 은하수를 뜻하는 못을 파고, 반월형 교각 네 개를 이어 오작교를 놓았다. 연못 안에는 도교에서 신선이 사는 곳으로 일컫는 세 개의 섬을 만들었다.

TT1: The lake, which is named after the Milky Way and the Ojak bridge are connected by four half moon-shaped piers. Jeong Cheol, a famous poet and governor of Jeolla Province, made three islands to symbolize the residence of Sinseon (a legendary hermit with miraculous powers) on the lake.

TT2: Jeong Cheol, governor of Jeolla-do Province, dug a pond symbolizing the Milky Way by connecting a stream from the Yocheon and built Ojakgyo Bridge with half moon-shaped piers on the pond. And three islands which were a residence of Sinseon(a legendary hermit) were built in the pond.

여기에는 부정관사의 오류가 보인다. 정철이 전라도 관찰사였으므로 영어 번역 문에서 동격으로 처리되었다. 부정관사의 사용법에 따르면 관직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동격이나 보어로 사용될 경우에 부정관사가 생략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TT1에서는 부정관사가 생략되지 않았으므로 오류이다.

이어지는 다음 문장에도 관사의 오류가 보인다.

(3) ST: 봉래(蓬萊)·방장(方丈) 두 섬에는 각각 백일홍과 대나무를 심고 영주(瀛洲)섬에는 작은 정자를 세웠다.

TT1: On two of the islands. Bongrae and Bangjang, zinnia and bamboo were planted, and a small pavilion was built on Yeongju island.

TT2: Zinnias and bamboos were planted on Bongrae and Bangjang island and a small pavilion was built on Yeongju island.

백일홍과 대나무는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관사를 붙이거나 복수형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는 여러 그룹이 있으므로 복수형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TT1에는 관사도 없고 복수형으로도 되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표현이다.

여기서 「광한루원」의 안내판에 나타난 관사의 오류를 살펴보았는데, 지면판 계상 다루지 않은 다른 안내판에도 관사의 오류가 있다. 관사의 오류에 있어서 정관사의 오류와 부정관사의 오류가 모두 눈에 띄었고,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있었다.

## 2.2. 문맥 파악 잘못에 의한 오류

번역작업은 문맥과의 씨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번역과정은 작업현장에서 원문의 문맥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남성우 78). 번역과정에서 문맥은 단어-구-절-문장-단락-글-상황의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남성우 79). 그러므로 문맥을 잘못 파악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한다. 구와 절의 수식 관계를 잘못 파악하면 원문의 의미와 다른 번역문이 생산된다. 문장이나 단락의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시제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고, 잘못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 문맥을 잘못 파악하여 발생한 오류를 「광한루」의 영어 안내판에서 살펴본다.

(5) ST: 이 건물은 조선 세종 때 명정승인 황희가 처음 세워 인조 4년(1626)에 다시 지은 것으로, 원래 이름은 광통루(廣通樓)였다.

TT1: This building was built by Hwang Hui, a well-known prime minister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1418-1450) of the Joseon dynasty, and was rebuilt in 1626. Its original name was Gwangtongru,

TT2: This building, which had first been built by Hwang Hui, well-known prime minister of Joseon Dynasty during King Sejong's reign (1418-1450), was rebuilt in 1626, the fourth year of King Injo. Its original name was Gwangtongru,

TT1의 번역가는 원천 텍스트의 문맥을 잘못 파악하여 이 문장에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원천 텍스트에 현재의 건물은 황희가 세운 건물이 아니라 1626년에 다시 지은 건물임이 밝혀져 있다. 황희가 세운 건물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건물은 황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인조 4년에 다시 지은 건물이다. 그렇지만 TT1에서는 현재의 건물을 황희가 세우고, 1626년에 다시 세운 것으로 번역되어 있으므로 잘못된 번역이다.

「광한루」 안내판의 둘째 문장은 다음과 같다.

(6) ST: 후에 정인지가 그 수려한 경치에 감탄해 전설상의 달나라 궁궐 <광한청허부(廣寒淸虛府)>와 닮았다고 하여 광한루라 고쳐 불렀다.

TT1: but Jeong In-Ji later renamed it Gwanhanru because it resembles “Gwanhan-cheongheobu”, a legendary palace on the Moon.

TT2: but Jeong Inji renamed it Gwanhallu because the beautiful scenery resembled that of Gwanhanchongheobu, a legendary palace on the Moon.

여기에는 시제의 오류가 보인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시제인데 종속절의 시제가 현재시제로 되어 있다. 시제의 오류는 문맥 파악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시간상의 전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와 한국어는 시제의 구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어에는 통상 현재, 과거, 미래 세 가지 시제가 사용되지만 영어에는 12가지 시제가 있다. 또한 한국어는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지만 영어에서 종속절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영어에서 주절의 시제가 현재시제일 때 종속절에 12가지 시제가 모두 올 수 있지만 주절의 시제가 과거시제일 때에는 종속절에 과거나 과거완료, 과거진행이나 과거완료진행 시제만 올 수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나 현재까지 계속되는 습관은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현재시제로 쓰고 역사적 사실은 과거시제를 사용한다.

여기서 이곳의 경치가 “광한청허부”의 경치를 닮았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나 현재까지 계속되는 습관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제일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시제이므로 종속절의 시제도 과거나 그 이전의 시제로 되어야 한다. 주절의 동사인 “renamed”가 과거시제로 되어 있으므로 종속절의 동사인 “resembles”가 현재시제로 된 것은 오류이다.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시제의 오류와 어휘의 오류가 보인다.

(7) ST: 건물 북쪽 중앙에 층계가 붙어있는데, 이것은 점점 기우는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 고종 때 만든 것이다.

TT1: In the center of the north, stages are attached to support the leaning building during the reign of King Gojong (1862-1907).

TT2: In the middle of the building's north side, they set up steps to stop the building from leaning any further in King Gojong's reign.

여기에서도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시제의 오류가 보인다. 현재에도 층계가 붙어 있으므로 현재시제를 사용한 것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이어지는 구문에서 고종 때 만든 것임이 분명히 밝혀져 있으므로 이 문장은 과거시제로 되어야 한다.

또한 건물이 기울어지는 것을 지탱하기 위하여 붙인 “층계”는 “steps”가 올바른 표현이다. “stages”는 극장용 “무대”나 건축용 “비계”를 뜻한다. 광한루에는 계단이 몇 개 설치되어 있으므로 임시로 설치한 건축용 “비계”를 뜻하는 “stages”는 적합하지 않다(노송자 23). 이 이외에 잘못 사용된 다른 어휘도 문맥에 맞게 TT2와 같이 바꾸어 써야 한다.

계속 이어지는 「광한루」 안내판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8) ST: 건물 앞에 연못을 만들고, 그 위를 가로질러 오작교라는 반월형 교각의 다리를 놓았다.

TT1: There is a lake in front of the building and a half moon-shaped bridge, called Ojakgyo (bridge) is placed over it.

TT2: A lake was dug in front of the building and a half-moon-shaped bridge, called Ojakgyo, was laid across it.

이 문장에도 시제의 오류가 보인다. 지금도 연못을 볼 수 있고, 그 위에 있는 다리를 볼 수 있으므로 현재시제를 사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지만, ST에 보이듯이 원천 텍스트가 과거시제로 되어 있으므로 과거시제를 사용해야 한다. TT1만 독립적으로 볼 때 시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단 전체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현재 연문이 있다는 사실보다 연문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정원을 만들며 조성된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다. 따라서 원천 텍스트의 문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TT1에서와 같이 현재시제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TT2와 같이 과거시제로 번역해야 한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문맥을 잘못 파악하면 원천 텍스트의 의미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시제와 어휘에 있어서 오류를 가져온다. 특히 원천 텍스트가 우리나라 언어일 경우에 한글에서는 시제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2.3. 과도한 삽입과 생략에 의한 오류

번역가는 생략된 정보를 명시적으로 추가 삽입하여 목표 문화권의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최희섭 2007 72). 이근희는 삽입을 해당 어휘나 해당 문맥의 번역에 있어서 번역자가 추가의 정보를 덧붙이는 방법이라고 정의한다. 등가를 이루는 어휘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거나, 특정 어휘가 목표 언어권의 독자에게 매우 생소한 경우, 문맥의 정황상 원천 텍스트의 특정 정보에 대해서 원저자와 원천 문화권의 독자 간에 공유된 정도의 차이가 매우 커 생략이나 함축적으로 표현된 경우에 삽입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121-122). 삽입은 원문의 표층 구조에서 생략된 함축적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삽입하여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삽입의 방법은 문장 내에 삽입하는 방법, 문장 내에 괄호로 처리하는 방법, 각주로 처리하는 방법 등 세 가지가 있다. 관련 정보를 문장 내에 삽입하는 방법은 마치 원문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삽입하여 목표 언어의 독자가 삽입임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문장 내에 괄호로 처리하여 삽입하는 방법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휘의 뜻풀이나 맥락 등을 주석으로 처리하여 문장의 안에 제시하는 방법이다. 각주로 처리하는 방법은 문장에 각주를 달았음을 표시하고 문장 밖에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삽입과 반대인 삭제나 생략의 경우도 가급적 피해야 하는 번역방법이다. 목

표 문화권에서 금기시하는 내용이나 표현, 또는 왜곡되거나 음란하고 외설스러운 부분이 원천 텍스트에 있기 때문에 목표 문화권의 독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이근희 122).

「광한루·오작교」와 「오작교」의 영문안내판에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관계가 적은 삽입과 생략이 많이 있다. 「광한루·오작교」 안내판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11) ST: 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만나 사랑을 맺은 이곳은 1419년 (세종원년) 황희 정승에 의해 축조되어 광통루라 명명되었으나 1444년 (세종26년) 정인지에 의해 광한루로 개칭하였다.

TT1: Chunhyang, the heroine of the ancient novel "Chunhyang-jeon" met her counterpart Mongryong in this pavilion which was built in 1419 and origin ally named "Gwangtonglu". Later it was renamed as the present name "Gwanghallu". The pond of which the both ends the stone bridge link are said to represent the structure of heaven in cosmology.<sup>3)</sup>

TT2: This pavilion, where Chunhyang met Lee Mongryong for the first time, was constructed and named as "Gwangtonglu" by Hwang Hee in 1419 (the first year of King Sejong's reign) and renamed as "Gwanghallu" by Jeong Inji in 1444 (the 26th year of King Sejong's reign).

여기에 문법적인 다른 오류도 많이 있지만 과도한 설명과 생략만 논하고자 한다. 원천 텍스트에 있는 “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만나 사랑을 맺은 이곳”이 TT1에서는 “Chunhyang, the heroine of the ancient novel "Chunhyang-jeon" met her counterpart Mongryong in this pavilion”으로 번역되어 있다. 원천 텍스트에 없는 『춘향전』을 추가하고 있으며, 그 작품의 주인공이 춘향과 이몽룡이라는 사실을 부연 설명한다.

그 다음 문장인 “ The pond . . . in cosmology.”는 원천 텍스트에 없는 내용을 설명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고 한 것이지만, 문법적으로도

3) 이 정자가 처음에는 “광통루”로 명명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originally”를 첨가하였으나, 이 단어가 한 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분절되었다. 그런데 하이픈을 넣지 않아서 “origin”과 “ally”로 두 단어가 되어 문장의 의미가 모호하게 되었다.

바르지 않은 문장이 됨으로 인하여 의미의 왜곡을 가져온다. 이와 같이 잘못된 생략이나 첨가에 의하여 문장이 왜곡되는 것은 번역에서 가장 피해야하는 사항 중의 하나이다. 특히 관광지 안내판의 속성상 지나치게 장황한 문장은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문장에서도 많은 삽입과 생략이 있어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

(12) ST: 오작교는 칠월칠석이면 천상의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애절한 사랑을, 지상에서 춘향과 이몽룡을 통해 완성시킨 다리이다.

TT1: Ojak-gyo Bridge has a meaningful legend; To help the rendez-vous of the two lovers destined to meet only one time in a year a flock of magpies made themselves a bridge for the lovers to step on.

TT2: Ojakgyo is a bridge which meant the completion of the love between Chunhyang and Lee Mongryong, symbolizing the sorrowful heavenly love affair of Gyeonwoo and Jiknyeo who met on the seventh day of July just once in a year.

TT3: Ojakgyo is a bridge which meant the completion of the earthly love, symbolizing the sorrowful heavenly love of which the lovers met just once in a year.

TT1은 오작교에 얽힌 전설과 소설의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는 원천 텍스트의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견우와 직녀, 그리고 춘향과 이몽룡을 생략하고, 원천 텍스트에 없는 까치 이야기를 삽입하였다. 원천 텍스트는 이 다리의 의미를 천상의 연인들의 전설을 지상의 연인들이 완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TT1에서는 지상에서의 연인들의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원천 텍스트에 없는 까치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의미의 왜곡을 가져왔다.

물론 이는 TT독자들에게 지상에서의 두 연인의 사랑 이야기를 천상의 두 연인의 사랑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너그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 이 장소가 춘향과 이몽룡,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상징하는 견우와 직녀의 사랑과 관련되어 있음은 밝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삽입과 생략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지 안내판의 속성상 길이의 문제 때문에 연인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TT1에서는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생략하는 방법을 택하여 번역한다면

TT3와 같이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오작교」의 첫 문장도 문맥을 잘못 파악하고 많은 삽입과 생략에 의해 의미가 매우 왜곡된 번역의 예를 보여준다.

(13) ST: 이 호수는 지리산 천 갈래의 계곡물이 모여 강이 된 요천(蓼川)수를 유입시켜 만든 연못으로 천상의 은하수를 상징하며 견우와 직녀의 전설이 담긴 오작교를 놓아 성춘향(成春香)과 이몽룡(李蒙龍)의 사랑이 얽혀 내려오고 있다.

TT1: A lotus pond was formed from the water of Yocheon River, which flows from several valleys of Mt. Jirisan. Constructed over this pond, Ojakgyo Bridge represents the love between Chunhyang and Lee Mongryeong. It also represents the Milky Way in a story of a sorrowful legendary love between two heavenly creatures allowed to see each other only once a year.

TT2: This pond, symbolizing the Milky Way, was made of the water which flew from the Yocheon River which flew from several valleys of Jirisan Mountain, and Ojakgyo is a bridge which meant the completion of the love between Chunhyang and Lee Mongryong, symbolizing the legendary heavenly love affair of Gyeonwoo and Jiknyeo.

“연못”을 “a lotus pond”라고 번역한 것은 원천 텍스트의 의미를 잘못 파악한 예이다. 견우와 직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일 년에 한 번만 만난다는 것을 삽입한 것은 원천 텍스트에 없는 내용을 삽입한 것이고, 이들의 이름을 생략한 것은 생략이다. TT1은 원천 텍스트의 한 문장을 세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하면서 세 번째 문장에서 대명사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그 대명사 “It”이 “Ojakgyo Bridge”를 지칭하게 된다. 그러므로 잘못된 문장 구조로 인하여 오작교와 은하수가 동일한 것이 되었다.

삽입이나 생략에 의한 오류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특히 문맥을 잘못 파악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차적인 오류라고 생각된다. 특히 원천 텍스트가 복잡한 경우에 번역가가 구나 절의 상호 수식 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하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삽입하고, 필요한 내용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삽입과 생략은 원천 텍스트의 의미를 왜곡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

기 때문에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2.4. 문화소의 이해 부족에 의한 오류

본고에서는 문화소를 “문화와 관련되는 요인 및 특성으로 어느 특정 상황에서 특정의 이해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유발시키는 어느 언어권의 모든 문화적, 사회-경제적 소여성을 일컫는 언어적 요인 및 원어 문화권에 나타나지만 역어 문화권에는 알려져 있지 않거나 다르게 정의된 비언어적 현상, 제도”(김효중 37)로 규정한다. 번역물은 원천언어의 형태적 측면 및 인지적·정감적 측면 모두를 재현한 등가물이기 때문에 원천 텍스트에 있는 문화소를 번역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독자는 텍스트를 이해하려 할 때 자신의 언어 및 문화에 기초한 지식을 동원하게 된다. 또한 독자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을 때만 새로 주어진 정보가 의미를 얻게 된다. 물론 동일한 언어권의 독자 중에도 개인에 따라 문화소의 이해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 문화권 내에 유사한 행동 및 반응 양식이 존재하는 것을 보아 문화소에 대한 이해는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김도훈 33).

여기서는 「춘향사당」, 「월매집」 그리고 「완월정」의 영어 안내판을 중심으로 문화소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류를 살펴본다. 「춘향사당」 안내판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13) ST: 열녀 춘향의 굳은 절개를 영원히 흠모하기 위해서 건립된 사당이며 입구 대문은 『임 향한 일편단심』을 줄여 단심문이라 칭한다.

TT1: This shrine was built to honor Chunhyang's steadfast faithfulness. The entrance of this shrine is called the “Gate of Chastity.”

TT2: This shrine was built to honor Chunhyang's steadfast faithfulness and the gate in the entrance is called Danshimmoon which means “Gate of Chastity.”

원천 텍스트에 있는 “단심문”은 영어에는 대응어가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어휘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음법에 따라 “Danshimmoon”이라고 번역하고 그 의미

를 주석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심문은 원천언어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문화소라고 할 수 있다. 목표 텍스트의 독자들에게 생소한 이러한 문화소를 번역할 때 그 의미만 번역하면 원천 텍스트의 문화적인 요소가 사라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TT2에서처럼 목표 텍스트의 독자가 삼입임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문장 내에 주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춘향사당」의 이어지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13) ST: 사당의 중앙에는 『열녀 춘향사』라는 현판이 있고 사당안에는 춘향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으며, 이 사당에서 축원을 빌면 백년가약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참배객이 늘고 있다.

TT1: A tablet which reads, “Shrine of Chunhyang, a faithful wife”, hangs at the center of the shrine, where her portrait is enshrined. The shrine is a very popular site to visitors, Particularly unmarried people, as it is believed that one may find a good spouse if he or she prays within this precinct.

TT2: A tablet which reads, “Shrine of Chunhyang, a faithful wife”, is at the center of the shrine, where her portrait is enshrined. Many visitors come and pray here, as it is believed that they can lead a lifelong marriage if they pray in this precinct.

이 안내판에서 설명하고 있는 현판 『열녀 춘향사』는 열녀 춘향을 위한 사당이라는 의미로 TT1에서는 “Shrine of Chunhyang, a faithful wife”으로 번역하였다. 춘향이 결혼한 상태에서 이몽룡을 기다린 열녀가 아니기 때문에 “wife”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다. 물론 월매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화수를 떠놓고 간단한 의식을 진행한 것을 결혼식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결혼식이라기보다는 약혼식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공인받지 못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변사또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할 수 있었다. 춘향이나 춘향가가 “The Song of Faithful Wife, Chunhyang”으로 번역되어 알려지고 있는 현실을 수용할 수도 있지만,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여 잘못된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A Shrine for Chunhyang, a virtuous woman”이라고 번역하거나 더욱 간결하게 “a virtuous woman, Chunhyang's Shrine”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백년가약”을 이루는 것이 미혼남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 텍스트에 없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TT1에 삽입한 것은 잘못된 번역이다.

「월매집」의 안내판은 다음과 같은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ST: 조선시대 우리나라 고전 『춘향전』의 무대가 된 집이다. 남원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광한루 구경길에 올랐을 때 그네를 타고 있던 성춘향에게 반하여 두 사람이 백년가약을 맺은 집으로 춘향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월매집이라고 하였다.

TT1: This house, named after Chunhyang's mother, was the main setting for the Story of Chunhyang. This is the very place where Chunhyang married Lee Mongryong, the son of a Namwon magistrate. Mongryong, while strolling around Gwanghallu Pavillion, was completely charmed by the beauty of Chunhyang who was on a swing.<sup>4)</sup>

TT2: This is the main setting of an ancient novel *Chunhyangjeon* in Joseon Dynasty. Lee Mongryong, the son of a Namwon magistrate was charmed by the beauty of Sung Chunhyang who was on a swing, while he was on his way of sightseeing Gwanghallu Pavillion. This house, named after Chunhyang's mother, was the place where they pledged their eternal love.

백년가약은 “결혼을 약속”하는 것을 뜻한다. 요즈음의 표현으로 한다면 “약혼한다”는 의미이다. “Marry”는 “결혼한다”는 의미이므로 성춘향과 이몽룡이 결혼을 하기에 앞서서 결혼을 약속한다는 의미가 상실되어 버린다. “약혼한다”는 원천어의 등가어는 “make a promise of marriage”, “make an engagement” 또는 “pledge one's eternal love”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둘이 정식으로 약혼식을 하거나 결혼식을 한 것이 아니므로 TT2와 같이 “pledged their eternal love”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완월정」에는 많은 문화소가 있는데 이를 잘못 번역한 경우가 많다.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

4) Lee Mongryong: “Mongry”와 “ong” 사이에 글자를 지운 흔적이 남아 있다.

(13) ST: 옛날 옥황상제가 계신 옥경(玉京)에는 광한전이 있으며 그 아래 오작교와 은하수가 굽이치고 아름다운 선녀들이 계관(달나라궁전)의 절경 속에서 즐겼다는 전설이 있다.

TT1: Legend says that the highest among the heavenly gods lives in Gwanghan Palace in the Heavenly Kingdom. Below the palace. Ojakgyo Bridge crosses the Milky Way, and beautiful heavenly nymphs enjoy the picturesque scenery of the laurel trees.

TT2: A legend says that there was Gwanghanjeon Palace in the Heavenly Kingdom where the highest of the heavenly gods(the Emperor of Heaven) resided and below the palace there was Ojakgyo (bridge) across the Milky Way and beautiful faerie enjoyed their lives in the picturesque scenery of the Moon Palace.

“옥황상제”는 한자에서 유래한 말로 천상에 있는 황제라는 의미이다. 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지만, 만물을 창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과는 다르다. 그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를 하며, 신과 같은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영어에서 사용하는 “god”의 개념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천상의 신 중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그 의미를 풀어서 번역하더라도 영어문화권의 독자들에게는 정확한 개념이 전달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옥황상제”를 천상의 신으로 번역하기 보다는 동양의 개념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는 “하늘의 황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동양에서 황제는 지상의 모든 것을 통괄하는 신과 같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황제라고만 번역할 경우 목표언어권의 독자에게 신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TT2에서와 같이 주석으로 설명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좋다(노송자 52).

원천 텍스트에는 옥황상제가 계시는 곳을 “옥경”이라고 하고 그 곳에 광한전이 있다고 했는데 반하여 TT1에서는 옥황상제가 옥경에 있는 “광한전”에 “산다”고 함으로써 의미가 왜곡되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아래 오작교와 은하수가 굽이치고”가 TT1에서는 “오작교가 은하수를 건넌다”라는 의미로 왜곡되어 있다.

은하수와 오작교의 관계는 원천 텍스트의 독자에게는 익숙한 내용이지만 목표언어권의 독자에게는 생소한 내용이므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오작교와 은

하수가 굽이친다”는 내용을 직역하지 않고 “오작교가 은하수 위에 있다”고 의역해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선녀들이 계관(달나라궁전)의 절경 속에서 즐겼다”는 말의 번역도 오류가 있다. TT1은 “선녀들이 월계수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겼다”는 의미로 번역되었다. 이는 ST에 선녀들이 즐긴 대상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데, 선녀들이 계관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즐겼다고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원천 텍스트에 계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괄호 속에 “달나라궁전”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T1에서는 “the laurel trees”라고 오역을 하고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에도 문화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생긴 의미의 왜곡과 더불어 많은 오류가 보인다.

(13) ST: 이 전설에 따라 광한루(廣寒樓)는 천상의 광한전을 재현한 것이며, 이 완월정은 지상인이 달나라를 즐기기 위하여 겹처마 팔작지붕에 오방집으로 전통적 조선식 누각을 세우니 광한루원의 절경을 한층 돋보이게 하고 있으며 해마다 이 누각에서 이 고장 민속 행사인 춘향제가 열리고 있다.

TT1: While Gwanghallu Pavilion is an earthly representation of its heavenly counterpart, Wanwoljjeong Pavillion was built for viewing the moon. Its octagon-shaped roofs and double eaves provide it with a unique architecture. This Pavilion graces the site of Gwanghalluwon Garden and is the main venue of the annual Chunhyang Festival.<sup>5)</sup>

TT2: Gwanghallu was built to represent an earthly counterpart of Gwanghanjeon in heaven, and Wanwoljeong was built for human being to enjoy the scenery of the moon. It shows the traditional Joseon Dynasty's pavilion pattern with unique eaves and roof style in the right place.\* The pavilion makes the Gwanghalluwon Garden more beautiful and is the place of annual Chunhyang Festival.

(\* The roof is a kind of pediment, when seen from the side, the roof style seems like the number eight in chinese letter. The eaves have

---

5) “Wanwoljjeong”과 “roofs”에는 잘못된 “i”와 “s”를 지운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으며, “Pavillion”에는 “i”자가 첨가된 상태로 있다.

extended eaves, that is, one layer of timbers are added to the original eaves timbers. The pavilion is located in the right place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nfiguration of the ground.)

여기에는 “겹처마 팔작지붕에 오방집”이라는 매우 전문적인 건축 관련 문화소가 있다. 원천 언어권의 일반인뿐만 아니라 지식인들도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용어가 세 개 나온다. 이 용어들은 심지어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알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판에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베이커(Baker 26)가 말하듯이 지시적 의미 차원에서의 대응어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용자 반응의 등가를 이루는 대응어가 없을 경우 동원 가능하며, 의미상의 위계질서가 언어 특수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어들 사이에서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번역전략인 상위어를 사용하여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도훈 39에서 재인용).

이러한 전문적인 문화소는 축어적으로 번역하기 보다는 TT2에서와 같이 “독특한 양식”, “전통적인 양식”이라고 번역하고 보다 관심을 갖는 관광객을 위하여 각주를 붙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TT1의 번역가는 “겹처마”를 “double eaves”, “팔작지붕”을 “octagon-shaped roof”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완전한 오역이다. “겹처마”는 TT2의 각주에 설명한 것처럼 원래의 석가래 위에 석가래를 한 줄 더 얹어서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고 지붕의 끝이 위로 높이 올라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TT1의 “double eaves”는 지붕이 두 겹이라는 의미가 되므로 의미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다.

“팔작지붕”은 지붕의 모양을 옆에서 보았을 때 한자어 “8(八)”자 모양인 지붕을 가리킨다. TT1에서는 이것이 8각형 지붕으로 표현하여 의미를 왜곡하였다. 또한 “오방집이라는 것은 집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위치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sup>6)</sup>

6) “오방집”은 국어사전은 물론 건축학 사전에도 없는 어휘로 건축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집의 모양이 아니라 집이 위치한 자리를 뜻한다는 답을 들었다. 풍수지리에 따라 동서남북과 중앙을 합하여 오방이라고 하고 이에 맞추어 위치시킨 집이라는 의미이다. 이를 색으로 보면 좌청룡(푸른색), 우백호(흰색), 북현무(검은색), 남주작(붉은

우리나라 관광지의 관광유적들은 대부분 과거의 유물이기 때문에 독특한 문화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영어로 번역할 때에는 문화소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에 대응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기 쉬운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주를 붙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2.5. 기타

「승월교 무지개 분수」의 영어 안내판은 앞에서 논의하지 않은 문법적 오류를 중심으로 고찰해본다.

ST: 밤이면 광한루원에 내려와 노닐다가 삼경이 넘어서 돌아가곤 했다는 신선들이 하늘로 오르기 위해 승월대로 가는 길목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연인끼리 이 다리를 건너면 사랑이 더욱 깊어진다고 한다.

TT1: The bridge "Seungwol-gyo" is said the pass of the spirits from heaven to stroll in Gwanghallu-won Garden at night. One end of it leads to a hill named "Seungwol-dae" from which the spirits are said to fly up to return. The night scenery against the rainbow fountain tunnel is so beautiful as to attract the passers-by to walk through the bridge.

TT2: It is said to have been the way to Seungwoldae from which Shinseons (Taoist hermits with supernatural powers) who came to enjoy in Gwanghalluwon at night returned to heaven. It is said that when sweethearts cross this bridge, their love becomes stronger.

이 예문에는 문맥을 잘못 파악하여 생긴 오류와 과도한 설명과 생략에 의한 오류, 그리고 문화소의 이해 부족에 의한 오류와 문법적인 오류 등 다양한 오류가 있다. 우선 문맥을 잘못 파악했다는 사실은 원천 텍스트의 내용과 TT1의 내용이 매우 다른 것으로 알 수 있다. 원천 텍스트에 없는 내용이 상당히 들어 있는 것은 과도한 삽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선을 “spirit”이라고 번역한 것은 문화

---

색)에 가운데 방위인 중앙의 노란색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집의 모양과 위치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전문 학술서가 아니라면 거의 필요가 없다.

소를 잘못 이해하여 발생한 오류로 생각된다. 이러한 오류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다른 오류만을 점검한다.

TT1의 첫 문장에서 수동구문을 사용한 것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다. 그렇지만,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 문장의 능동구문을 수동구문으로 전환해보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TT1에 어휘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를 모두 바른 어휘라고 생각하고 문법적인 면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능동구문: They say that the bridge “Seungwol-gyo” was the pass of the spirits from heaven to stroll in Gwanghallu-won Garden at night.

-->수동구문으로 전환: It is said that the bridge “Seungwol-gyo” was the pass of the spirits from heaven to stroll in Gwanghallu-won Garden at night.

-->단문으로 전환: The bridge “Seungwol-gyo” is said to have been the pass of the spirits from heaven to stroll in Gwanghallu-won Garden at night.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목적어가 절인 능동구문을 수동구문으로 전환하고 단문으로 전환할 때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이 규칙에 따라 단문으로 전환한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to have been”은 생략될 수 없다. 그런데 생략하였으므로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이 되었다.

TT1의 두 번째 문장에도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 그 다리의 한쪽 끝은 “승월대”로 이어지고 “승월대”에서 신선들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One end of it”이라고 썼지만, 대명사 “it”의 소유격은 “its”이므로 부득이 소유격을 사용하려면 “Its end”라고 써야 한다. 그렇지만 강 위에 놓여 있는 다리의 한쪽이 광한루원으로 연결된다는 암시가 있으므로 “One end”라는 말은 필요가 없다.

TT1의 세 번째 문장은 전치사의 사용에 있어서 오류를 보여준다. 전치사 “through”를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연인들이 다리를 “건넌다”는 의미는 다리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걸어나가는 것을 뜻하므로 적합하지 않다. 다리를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리 위를 걸어나가는 것이므로 전치사는 “on”이 되

어야 한다. 전치사는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 3. 결론

지금까지 광한루원 일대의 관광안내판 8개의 번역을 살펴본 결과 8개의 영어 안내판 중에서 오류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각각의 안내판에 무수한 오류가 있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관사의 오류, 문맥 파악 잘못에 의한 오류, 과도한 설명과 생략에 의한 오류, 문화소의 이해 부족에 의한 오류 및 기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또한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면서 각각의 안내판을 한 번씩만 살펴보는 방식을 취했다.

관사의 오류는 「광한루원」, 문맥 파악 잘못에 의한 오류는 「광한루」, 과도한 삽입과 생략에 의한 오류는 「광한루·오작교」와 「오작교」, 문화소의 이해 부족에 의한 오류는 「춘향사당」, 「월매(月梅)집」, 「완월정」, 그리고 기타는 「승월교 무지개 분수」의 영문 안내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 문장에서 다른 요소들의 오류는 고찰하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오류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거의 모든 안내판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종합적으로 발견되는데,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각각 특정한 부분의 오류에 중점을 두고 그것만 논의한 것이다.

본고에서 분류한 다섯 가지 오류를 다른 안내판을 대상으로 고찰해도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 고찰을 통하여 광한루원 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영어 안내판의 오류가 총체적인 것임이 밝혀졌다. 비록 본 연구가 특정한 관광지 일부 안내판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본고에서 밝혀진 오류는 특정한 안내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광지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이 지니고 있는 전반적인 오류라고 확대 적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 관광 안내판은 외국인에게 국가의 홍보를 담당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말없는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다(최희섭 2008 260). 영어 안내판의 내용과 영어의 수준은 국가의 체면과 관련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내용을 정확하고 명료한 영어로 표현하여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의 문화유산의 인식 수준

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안내판의 오류는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관광지 안내판의 오류는 줄고 「광한루원의 영어 안내판에 나타난 고유명사 철자 오류」에서도 언급했듯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광지 안내판의 제작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부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도훈. 2006. 「문화소의 부등성 보상을 위한 번역전략: 부산 관광지 안내 표지판 및 책자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7.1: 31-51.
- 김왕직. 2007. 『알기 쉬운 한국 건축 용어 사전』. 서울: 동녘.
- 김효중. 2004.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서울: 푸른사상사.
- 남성우. 2006. 『통번역의 이해와 수행』. 서울: 한국문화사.
- 노송자. 2008. 『관광지 영문 안내판의 번역 오류 분석: 남원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2000. 『로마자 표기 용례 사전』.
- 민중서림 편집국. 1994. 『민중 옛센스 국어 사전』. 서울: 민중서림.
- 신기철, 신용철 편저. 1980. 『새 우리말 큰사전』. 상, 하. 서울: 삼성출판사.
- 이근희. 2004. 「번역의 변환 현상에 관한 소고」, 『번역학연구』 5.1: 113-144.
- 이영옥. 2000. 「한국어와 영어간 구조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 『번역학연구』 1.2: 47-76.
- 전라북도. 2000. 『문화재안내판 문안집』(국가지정편). 전주: 도서출판 학예사.
- 전라북도. 2000. 『문화재안내판 문안집』(도지정편). 전주: 도서출판 학예사.
- 정일영. 2006. 「일본어 역 고궁 안내문의 문제점 고찰」. 『번역학연구』. 7.1, 177-97.
- 최희섭. 2008. 「광한루원의 영어 안내판에 나타난 고유명사 철자 오류」. 『번역학연구』. 9.1, 259-281.

\_\_\_\_\_. 2007. 『번역 첫걸음 내딛기』. 서울: 도서출판 동인.

Baker, M.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Neubert, A., & Shreve, G. M. 1992. *Translation as Text*. Kent: The Kent State UP.

Venuti, L. 1995. *The Invisibility of the Translator: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http://www.korean.go.kr/06\\_new/rule/rule06.jsp](http://www.korean.go.kr/06_new/rule/rule06.jsp)

[Abstract]

## Translation Errors in the English Information Boards of Gwanghalluwon Area

Choi, Hie Sup  
(Jeonju University)

In the summer of 2007, I happened to find some errors in the English information boards in Gwanghalluwon Area. I checked eight information boards. I wrote and published a paper on spelling mistakes of proper nouns in them, and this is a kind of sister paper of that, because the same information boards were examined in a different aspect.

The titles of the information board are “The Whole Area of Gwanghanru”, “Gwanghanru”, “Gwanghallu Pavilion & Ojak-gyo Bridge”, “Ojakgyo Bridge”, “Chunhyang Shrine”, “Wolmae's House”, “Wanwoljeong Pavilion”, and “Rainbow Fountain on Seungwol-gyo Bridge”.

The errors were examined in the following sub-sections: articles, context, excessive explanation and omission, lack of understanding cultural elements, and grammar. Though almost all the information board can be examined in the whole sub-section, each information board is checked only once in one sub-section.

The examination naturally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all the information board contains much more than one mistakes. I am afraid that this conclusion can be applied to the other information boards of other place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heck and correct all the information boards, if there is any errors.

▶ Key Words: Gwanghalluwon, information board, errors of articles, errors of context,  
cultural elements, grammatical errors

최희섭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영문과 교수

choihiesup@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 영시, 동서비교문학

논문투고일: 2008년 4월 28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08년 6월 17일